

제43회

2026년 환경주일

6월 첫째 주일

6월 둘째 주일 (감리교)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이사야 2장 4절)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 참여교단 · 단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구세군한국군국 | 기독교대한감리회 | 기독교대한복음교회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루터회 | 대한성공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 한국기독교장로회 | 한국정교회

| 협력 | 녹색교회네트워크

| 문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
02-3673-4943 www.kncc.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02-711-8905 www.greenchrist.org

목차

🍃 인사말	3
🍃 환영사	5
🍃 주제해설	6
🍃 환경주일 공동기도문	14
🍃 환경주일 예배자료	
· 환경주일 장년 설교문	15
· 환경주일 청소년 기도문	22
· 환경주일 청소년 설교문	23
· 환경주일 어린이 기도문	26
· 환경주일 어린이 설교문	27
🍃 교회학교 활동자료	29
🍃 아시아교회와 함께 드리는 기도	31
🍃 환경주일 예배예식서	35
🍃 환경주일 선언문	40
🍃 환경주일 실천자료	42
🍃 은총의 숲 6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46
🍃 기후위기 걸기기도회	48

인사말

백영기 목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

창조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 공동체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로 한국교회가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환경주일을 함께 지켜온 지 4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을 밝히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더욱 엄중합니다. 인류는 지금 기후 붕괴와 전쟁이라는 ‘이중의 재난’ 앞에 서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총성 속에 생명이 찢겨 나가고, 무분별한 군사주의와 탐욕이 뿜어내는 온실가스는 하나님의 몸인 창조세계를 향한 가장 폭력적인 ‘생태학살’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주일의 주제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환을 명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를 선포했습니다(사 2:4). 이는 단순히 무기를 없애는 것을 넘어, 타자를 지배하고 자연을 착취하려는 우리의 계층적이고 폭력적인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부르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고 인류의 모든 역량을 생태 복원과 생명 살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환경주일은 단순히 “숲을 만들자”는 구호를 넘어,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숲이 되자”는 존재론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숲은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품어내고 치유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숲이 된다는 것은, 파괴적인 무기와 화석연료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만물을 하늘처럼 대하는 ‘모심’과 ‘살림’의 영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하늘과 땅의 만물을 화해시키신 그 평화(골 1:20)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되는 참혹한 생태학살을 규탄하며, 파괴된 대지의 치유를 위해 기도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험한 핵발전을 멈추고 햇빛과 바람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는 '녹색 은총'인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앞장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녹색그리스도인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제 '기후정의 10년 행동'의 여정 속에서 구경꾼이 아닌 전환의 당사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탐욕의 칼을 내려놓고 생명의 숲이 될 때, 신음하던 피조물은 비로소 환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2026년 5월 19일, 연동교회에서 열리는 환경주일 연합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숲이 되어 만나는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환영사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인영남 목사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2026년 환경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묵상하며, 믿음의 책임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라는 주제 아래, 파괴의 질서를 생명의 질서로 전환하라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사 2:4). 이는 폭력과 죽음의 도구를 생명을 일구는 도구로 바꾸는 근본적인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증언합니다(골 1:20). 이 화목은 모든 피조세계를 아우르는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이제 교회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신앙적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절제로, 무심함을 돌봄으로 바꾸어 낼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신음소리에 응답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결단이 모여 이 땅을 살리는 거대한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피조세계를 아끼고 돌볼 때, 교회는 이 시대의 참된 ‘생명의 숲’이 되어 하나님의 화해를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환경주일이 창조세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는 복된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교회와 온 창조세계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6년 환경주일 주제해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이사야 2:4, 골로새서 1:20

임영섭 목사 | 경동교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번 환경주일의 주제인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는 성경의 인간관과 세계관에 토대를 두고 있다. 창세기의 인간 이해는 단순히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학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히브리어에서 인간을 뜻하는 ‘아담’은 땅을 의미하는 ‘아다마’에서 나온 말이다. 두 단어는 ‘붉다’ 혹은 ‘붉은 것’이라는 뜻의 어근에서 파생되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과 동물에게 붉은 피가 돌 듯이 흙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였다. 결국, 인간이 ‘붉은 흙’에서 나왔다는 표현은 단순히 피부색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땅이 생명으로 함께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 언어적 관계를 신학적으로 극대화한다. 하나님이 ‘흙’ (아다마)으로 ‘사람’ (아담)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구절은 인간 존재의 이중적인 본질을 보여준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땅에 속한 물질로 된 존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숨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다. 또한 “아담-아다마”의 관계는 인간의 유한성과 순환성을 강조한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선언은 인간이 결국 다시 ‘아다마’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땅과 같은 운명을 공유한다. 즉 인간은 땅에서 나와 땅으로 돌아가면서 순환하는 존재이며, 이 점에서 창세기의 인간 이해는 생태적이고 유기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 역시 깊은 신학적 상징을 담고 있다. ‘아담’은 단순

히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을 뜻하는 보편적 개념이며, ‘하와’는 창세기 3장 20절에서 ‘모든 산 자의 어머니’로 설명되듯이 ‘생명’ 혹은 ‘살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둘이 결합함으로써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창세기 2장은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나왔다고 묘사하는데 이것은 인간 존재의 상호 의존성과 내적 연관성을 드러낸다.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창 2:23)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하와가 아담과 같은 본질을 공유하면서 인간은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완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게다가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은 다시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다. 이 점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앞서 살펴본 아담과 아다마의 관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아담이 아다마에서 나와 다시 아다마로 돌아가듯이,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와서 다시 생명을 이 땅의 모든 아담(인간)에게 돌려준다. 결론적으로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아다마-아담-하와-인간-아다마’라는 역동적인 순환 구조를 제시한다.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존재와 생명은 상호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관을 담고 있다.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라는 명령이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모든 생명이 서로를 돕고 의지하면서 생명을 마음껏 누리기 위한 조건이다. 이것은 본 주제인 이사야서 2장 말씀도 마찬가지다. 인간과 자연을 죽이고 파괴하는 칼과 창을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쟁기와 낫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반전 운동이 아니라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한 노력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원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군사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는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다룰 때 자연도 신음한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창 3:17)는 말씀은 인간의 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자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 세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땅과 창조 세계까지 함께 흔드는 사건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창 4:10)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땅은 단순한 사건의 배경이 아니라 인간의 폭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증언하는 살아 있는 존재다. 더 나아가 가인은 “땅이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창 4:12)이라는 심판을 받는다. 이는 인간의 죄가 땅의 생산성까지 무너뜨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체를 깨뜨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를 강조한다. 레위기에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이 더러워지고 그 주민을 토해낸다”(레 18:25, 28). 이사야서에서는 “땅이 그 주민 때문에 더럽혀졌다.”고 하며, 인간의 불순종이 땅의 파괴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사 24:5-6). 아모스서에서도 인간의 불의와 잘못은 “목자의 초장을 시들게 하고 갈멜산 꼭대기를 마르게 한다(암 1:2). 호세아서는 “이 땅이 슬퍼하고, 그 안에 사는 생물들이 쇠약해진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죄와 허물이 동물과 자연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호 4:1-3). 이런 표현들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죄와 허물이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약성경에서는 이 생각이 더욱 넓은 차원으로 확장된다. 하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요 3:16).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막 16:15).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롬 8:20-22). 이는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 전체가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인간의 구원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과 연결된 사건으로 이해된다. 인간은 ‘흠에 속한 존재’로 출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고전 15:47). 결국,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 이해는 분명하다. 인간은 땅에서 나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모든 다른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새로워지는 존재이며, 그 완성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 속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창조 세계가 파괴된다면 인간의 구원도 온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기와 전쟁은 자연도 해친다

전쟁과 군사 무기는 기후 위기 시대에 단지 사람의 생명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와 토양과 물, 숲과 농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무너뜨린다. 군대는 평상시에도 막대한 화석 연료를 소비하고, 전쟁이 시작되면 각종 무기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파괴하면서 탄소 배출이 그 어느 때보다 급증한다. 미국 브라운대학교의 전쟁 비용 프로젝트(the Costs of War project)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미국 군사활동과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약 12억 톤에 이른다고 분석했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와 최근 학술연구들도 군비 증강이 탄소집약도를 높여 기후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군대도 탄소를 배출한다.”는 정도가 아니다. 전쟁은 기존의 전력, 상수도, 교통, 주거와 여러 생활 인프라를 파괴하고, 그 파괴된 시설을 다시 복구하려면 건설 자재와 중장비의 사용이 늘어나 추가로 탄소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환경피해는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시설 파괴, 대형 산불, 피난과 물류 이동, 재건 수요까지 이어지면서 기후와 환경에 장기적인 피해와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의 2022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피해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할 때, 그 누적 피해가 2억 3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게다가 전쟁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생태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는다. 최근 가자지구에 대한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의 평가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하수, 건물 잔해, 독성 물질이 팔레스타인 땅의 토양, 물, 공기 등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폐수처리시설 파괴와 식수 오염은 인간의 생존과 생태계 복원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는 계속되는 기후 위기 시대에 특히 치명적인 것으로 본다. 이미 더운 기후와 물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에서 전쟁이 물과 위생 체계를 무너뜨리면, 온도 상승과 질병, 식량 불안이 연쇄적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미국, 이스라엘, 이란이 벌이는 전쟁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1991년 걸프전에서는 쿠웨이트 유전 수백 곳이 불타면서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이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이는 현대전이 석유 인프라를 공격할 때 어떤 환경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상징

적으로 보여주었다. 이후 이라크와 중동 지역의 다른 분쟁에서도 유전 화재와 유출이 반복되며 검은 연기, 그을음, 중금속, 오염된 빗물과 토양 문제가 이어졌다. 이런 사례는 화석연료 기반 군사체계가 전쟁 시 곧바로 대규모 환경재난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에 일어나는 광범위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 그리고 이란의 보복은 전쟁이 끝나도 후유증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군사 무기가 일으키는 환경피해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오래 남는다.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에이전트 오렌지’로 불리던 고엽제는 숲을 고사시키고 농경지와 생태계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독성 잔류물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남겼다. 최근까지도 베트남에서는 토양 정화와 건강 피해 대응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무기가 단지 ‘전투 중의 살상’에 그치지 않고 세대를 넘어 생태계에 ‘상처’와 ‘빔’을 남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쟁은 숲을 없애고 농지를 황폐화하고 먹이사슬과 수계를 오염시켜, 기후 위기 시대에 더욱 중요한 탄소흡수원과 생태적 회복력을 약화한다. 전쟁이 없어도 기후 위기라는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는 현실에서 전쟁은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을 남긴다.

또 다른 문제는 군비 경쟁 자체가 기후 위기 대응의 자원을 망가뜨리고 없앤다는 점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24년 세계 군사비가 2조 7천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는데, 이런 지출 증가는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적응, 재난복구, 생태복원에 들어가야 할 재정과 정치적 집중력을 빼앗는다. 다시 말해 전쟁과 군사주의가 불러오는 환경피해는 배출과 오염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의 능력 자체를 약화한다는 점에서, 최근 전 세계에 확산하는 전쟁과 막대한 군사비 지출은 기후 위기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만든다.

자연이 분노할 때 전쟁이 일어난다

기후 위기와 환경파괴가 전쟁을 일으키는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연구와 국제기구 보고서들은 기후 위기가 물 부족, 식량 부족, 사회 양극화, 대규모 이주, 취약한 국가 제도의 불안정을 한꺼번에 악화시키면서 폭력과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증폭 요인’이라고 본다. 유엔환경계획은 기후변화가 식량, 물, 에너지 공급, 강제 이주,

자원 경쟁을 통해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도 기후 충격이 국가와 사회의 갈등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한다. 물론 기후 위기는 전쟁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변수는 아니지만, 이미 약해진 사회를 더 쉽게 폭력으로 기울게 만드는 강한 조건이라는 데 동의한다.

여기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문제가 물과 농업의 위기다. 기후변화는 강수량을 불규칙하게 하고, 가뭄과 폭염을 심화시키며, 농업 생산과 목축 기반을 약화한다. 세계은행은 물 부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이주를 촉진하며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IPCC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이 기후 및 기타 요인 때문에 적어도 연중 한 달은 심각한 물 부족을 경험한다고 평가한다. 물이 줄어들면 단지 마실 물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농업, 목축, 전력, 도시 생활 전체가 압박을 받는다. 그 결과 공동체 간 경쟁이 심해지고, 국가가 이를 조정할 역량이 약할수록 분쟁 가능성은 커진다.

예를 들어, 시리아는 이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진 심각한 가뭄은 비와 토양 내 수분을 장기적으로 감소시켰다. 그 후로 농촌 경제가 무너지고 대규모 이주가 도시로 이루어지면서, 이미 존재하던 실업, 불평등, 정부의 무능과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시리아 내전이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가 불러온 가뭄이 이미 쌓여 있던 정치 경제 사회적 긴장을 폭발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헬과 다르푸르, 그리고 차드호 유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UNEP와 UN 자료들은 이 지역에서 사막화, 강수 변동, 토지 황폐화, 수자원 압박이 농민과 목축민 사이의 긴장을 키우고, 생계 기반이 약해진 공동체를 무장세력 동원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기후 위기는 폭력만이 아니라 이주를 통해서도 안보 불안을 키운다. 가뭄, 홍수, 태풍, 토양 황폐화는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게 하고, 이렇게 이동한 인구가 도시 변두리나 국경 지대에 몰리면서 주거, 일자리, 치안, 식량, 급수 체계에 큰 압력이 생긴다. 세계은행은 방대한 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강수 충격과 물 위기가 인구 이동과 연결된다고 보았고, 중앙아메리카 분석에서도 가뭄, 산사태, 기후위험이 이주를 키우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기후 난민 문제가 이미 취약한 국가와 도시의 수용 능력을 넘어설 때, 정치적 선동과 범죄조직, 국경 통제 강화, 공동체 간 적대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 간 전쟁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물 문제는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 나일강 유역에서는 UNEP가 이미 기후로 인한 홍수와 물 부족 문제를 갈등 예방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인더스강 유역에서도 세계은행은 인더스 수자원 조약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긴장 속에서도 협력 틀을 제공해 왔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약의 중단과 상호 비난이 이어지며 물이 안보와 외교 갈등의 핵심 자원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 휴전 이후에도 인더스 수자원 조약이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파키스탄은 물의 무기화를 비난했다. 아직 이것이 곧 전면전으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로 유량의 계절성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국경을 넘는 강을 둘러싼 긴장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기후 위기와 환경파괴는 전쟁과 폭력을 직접 일으키는 힘이라기보다, 사회를 지탱하던 물, 식량, 토지, 생계, 이동의 균형을 무너뜨려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비가 줄고, 땅이 메마르고, 먹을 것이 줄고, 사람들이 떠나고, 국가는 이를 조정하지 못할 때 갈등은 더 쉽게 폭력이나 전쟁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기후 위기 대응은 단지 환경정책만이 아니라 평화정책이기도 하다. 물 관리, 기후적응, 생계 보호, 산림과 토양 복원, 공정한 자원 배분, 국경을 넘는 협력 체계는 탄소 감축 못지않게 전쟁 예방의 장치가 된다. UNEP와 IPCC가 공통으로 말하듯, 기후 위기 시대에는 생태 회복과 평화 구축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이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군사 무기를 농기구로 군사 기지를 농경지로

우리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기후 위기로 신음하는 이 시대에 또 한 번의 환경주일을 맞이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것은 정의, 평화, 생명을 향한 신앙, 정치, 경제, 문화적 대전환을 의미한다. 필자는 몇 년 전에 보았던 한국전쟁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잊지 못한다.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를 소재로 한 그 기록영화에는 전투를 준비하는 한국군과 미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전투식량을 먹고 대포를 운반하면서 다가올 전투를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 화면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 함께 보였다. 그것은 저 너머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제 곧 포탄이 빗발치게 될 전쟁터에서 누군가는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생명을 일구고 있었다. 누군가 기후 위기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전쟁과 폭력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우리는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포탄이 빗발치는 세상에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 일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 한번 숲을 이루고 아름다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환경주일 공동기도문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흠족해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간 우리가 외면해 온 고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그간 우리가 잊어버린 생명의 신음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그간 우리가 침묵했던 정의의 말을 전하게 하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무너지는 생명들, 불타는 숲과 사라지는 종들,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이웃 앞에서
평화를 말하면서도 경쟁과 배제의 논리를 따랐고,
생명을 말하면서도 편리와 효율을 앞세웠으며,
정의를 말하면서도 부정의에 눈감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두려움 속에서 움켜쥐고 있던 칼과 창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배하려는 마음을 멈추게 하시며,
탐욕과 교만의 언어를 잠잠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함께 걷게 하시고,
서로에게 숨이 되어 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며,
서로에게 들봄이 되어 어느 존재도 소외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숲이 되어 기꺼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숲이 되어 기꺼이 폭력을 멈추고 만물의 화해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가 숲이 되어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환경주일 예배자료

장년 설교문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 그가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의 분규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4)
-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20)

송진순 목사 |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환경주일의 시작: 생명 살림의 여정

우리는 올해로 마흔세 번째 환경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연도의 누적 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창조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천혜 자연은 훼손되고 환경오염은 심각했습니다. 인간도 자연 이상으로 병들었습니다. 오염이 일정 수준을 넘자, 정부는 보건사회부 산하 환경관리관(1977~1979)을 분리하여 1980년 환경청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공기관의 활동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고, 같은 시기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1981년, 개신교 목사와 가톨릭 신부가 주축이 되어 사회학자와 과학자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일교회의 지원을 받아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이듬해 1982년 4월 ‘한국 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을 넘어 사회의 부조리를 알리고 생명 파괴의 문제에 개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시민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환경오염과 사회 문제가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자 창조세계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환경주일’이 제정되었습니다.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추어, 한국교회는 6월 첫째 혹은 둘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켜왔습니다. 환경 주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며, 창조세계와 더불어 서로를 돌보고 살리는 존재로서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환경주일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생태 감수성을 살리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자연세계와 함께 온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돈우어 각 존재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협력하는 일, 다시 말해 생명 살림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친교가 삶으로 구체화되며 하나님 사역에 참여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정의로운 신앙을 요청합니다.

기후위기와 전쟁의 시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신앙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빙하는 녹고 해수면은 상승하며, 폭염은 해마다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폭설,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는 삶을 위협합니다. 산불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고, 수많은 식물과 동물이 주검이 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의성 산불로 10만ha의 임야가 불탔고(서울 면적의 1.73배) 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성 산불은 ‘괴물 산불’이라 불릴 만큼 심각했지만, 이곳에서 불타 죽은 수역, 수천의 곤충과 새, 동물의 이야기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실된 자원 정도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빠르게 잊었습니다. 지구 자연이 훼손되고, 인간의 삶이 무너지고, 동식물이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일상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2025년 여름, 토마토 1kg이 11,000원, 상추 한 봉지가 5,000원이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먹거리와 생필품,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또한 지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안정, 개인의 성취, 여행, 신앙과 봉사, 건강, 가족의 행복 말입니다. 그러나 질문해야 합니다. 지구의 생태 기반이 붕괴하고 있는데 인간의 건강과 온전한 번영이 가능한 것인가요? 인간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흠족함이 우리 시대에도 가능한가요?

도시 문명과 제국의 시대

우리는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발달한 문명을 살고 있습니다. AI(인공지능)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 첨단 의료기술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며 보다 건강한 삶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후위기,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양극화, 사회 내 갈등, 팬데믹의 출현, 만연한 정신적 피폐함, 각종 중독 같은 사회 병리적 현상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는 전쟁과 폭력은 우리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4년 넘게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탄소중립의 의지를 꺾어놓았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미국 이란 그리고 중동 전쟁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폭력에 의한 세계의 도래, 즉 제국의 시대를 소환하였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2주 간 발생한 탄소 배출량이 아이슬란드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능가했습니다. 전쟁은 인간과 동식물을 살해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며 전 세계인을 무기력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게다가 탄소배출은 수치로 계산되지 않을 만큼 막대했고, 원유 확보가 생존과 직결되면서 세계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군비 시설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구를 살리고 인류의 종말을 늦추고자 연대했던 탄소중립에의 의지는 좌절되고, 그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증설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원자력-핵발전에 대한 기대 수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이행 중입니다. 핵은 무기 산업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에 대한 민감성은 높아졌고 세계가 각자도생을 위해 방어적일수록, 타인을 향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마음, 생명을 위한 연대의 가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열악해지는 경제 상황,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적진을 향해 총을 겨눌 때, 그로 인한 기후위기는 더 많은 생명을 희생하고 전 지역의 삶의 조건을 훼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각기 다른 얼굴을 한 문제들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자랍니다. 그 구조의 핵심에는 이분법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나와 타자를 구분하고, 생존을 위해 타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이기적 사고방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왜곡된 신앙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창세기 4장은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가인과 아벨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폭력 사건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분노하여 얼굴빛이 변합니다. 자기보다 동생이 인정받는 것을 시기하며 괴로움은 증폭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를 다스리라’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불편했고, 자신의 열등감을 부추기는 동생의 존재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고 하나님에게 변명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에게 쫓겨나 도시를 세우고(4:17), 그의 후손은 죄를 다루는 이들이 됩니다(두발가인, 4:22). 하나님에게 거절당하고 살인을 저지른 가인, 그는 도시 건설자가 되어 구리와 쇠를 단련합니다. 그가 이룩한 기술문명은 인간의 위대한 성취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면을 드러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 피흘림 위에 세워진 문명에는 타자를 위한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가인과 후손들은 언제든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칼과 창을 버리고 자신의 경계를 공고히 합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지배하고 침범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정당한 서사가 됩니다. 권력에의 욕망은 인간 본연의 욕구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선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가인의 후예가 되어 도시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정교해진 무기, 더 빠른 파괴, 더 거대한 전쟁과 희생을 당연한 생존 서사로 여기며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익과 행복의 대부분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플러그만 꽂으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전기는 고압 송전탑을 타고 흐르고, 가볍고 편리한 플라스틱 용기는 영원히 썩지 않는 쓰레기가 되어 쌓이고, 유행에 따른 풍성한 옷과 먹거리는 누군가의 값싼 노동을 착취한 결과이며, 성장과 발전을 위한 출장, 휴식을 위한 빈번한 비행기 여행은 막대한 탄소를 뿜

어냅니다. 이 시대는 약한 자들의 고통은 은폐되고, 죄는 언제든 변명 가능하며, 구조의 악은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하고 발전된 세계에서 혐오와 차별, 배제와 착취라는 문제와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생명의 숲 되기

그런데 오늘 이사야 2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의 분규를 조정하실 것이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는 앗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초토화하고 유다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국의 군대가 휩쓸고 간 자리가 얼마나 참혹한지 잘 알았습니다. 전쟁은 민족을 와해하고 무고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며 하나님이 기어핀 땅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산림이 불타고 가축이 발버둥치며 밭의 소산이 짓밟히는 비극의 현장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폭력과 죽임의 신이 아니라 분쟁을 심판하고 갈등을 조정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선언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등장은 민족으로 하여금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라는 선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폭력과 무법이 난무하는 세계를 끝내고, 인간이 자신의 삶을 살며 삼라만상이 그분의 섭리에 따라 소출을 내며 번성할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전과 다른 문명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칼과 창이라는 혐오와 폭력 대신 보습과 낫으로 땅을 일구고 생명을 살리라는 요청입니다. 생명을 중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세계를 대할 때 비로소 다른 생명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존하는 삶, 서로 돌보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또다시 군림하는 왕이 되는 대신 존재의 방향을 바꾸어 세계의 해방과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 가십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증명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고 오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된 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만물을 화해하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왜곡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을 회복하십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폭력은 더 큰 폭력으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비움과 희생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는 폭력의 희생물이 아니라 폭력의 방식을 해체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건네는 화해는 단순한 이어 붙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의 회복이고, 단절된 관계의 복원이며, 폭력과 약탈 위에 세워진 문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였기에 인간과 피조물을 죄에서 해방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묻는 대신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비움을 입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화해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세계의 고통을 들어야 합니다. 잠시 멈춰 서 깨어진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을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라는 선언은 단순한 은유를 넘어 섭니다. 숲은 개별의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와 나무, 곤충과 짐승, 흙과 바람, 태양과 습기가 순환하는 관계망 속에서 서로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 비로소 숲이 됩니다. 숲은 개별 존재의 각축장이 아닙니다. 상호의존적이고 호혜적 관계망입니다. 숲은 배제가 아니라 공존을 통해 유지됩니다. 경쟁이 아니라 순환을 통해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숲을 기획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숲이 되어 숲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인간의 오만과 지배욕을 건드리지만, 후자는 화평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의 존재 방식을 변화합니다.

우리가 숲이 된다는 것은 환경 실천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들고 있는 칼과 창을 내려놓는 결단을 통해 내 안에 도사린 탐욕과 교만, 지배욕을 대면하고 참회함으로써 생명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과 기후위기, 혐오와 배제, 불평등과 분열은 단순히 환경 문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묻는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명확합니다. 칼과 창으로 가득한 문명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보습을 들어 땅을 일구고 전환의 과정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빌려온 탄소 부채는 산처럼 쌓여 있고, 창조세계의 신음은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고통과 무관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 살림의 충만함으로 이 땅의 고통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하나님의 흡족함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숨으로, 십자가 보혈이 만물의 화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생명의 숲이 되어야 합니다.

43년 전, 선배 신앙인들이 공해 현장으로 달려갔던 정의로운 신앙의 실천을 품어봅니다. 그리하여 높게 쌓아 올린 성벽을 허물고, 보습과 낮을 들고 생명의 땅을 일구어 갑시다. 하나님의 탄식이 하나님의 흡족함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관계망이 됩시다. 이 땅이 생명의 숲으로 살아날 날을 고대하며 칼을 보습으로 바꾸는 거룩한 전환의 과정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환경주일 청소년 기도문

살롬의 하나님,
모든 생명과 늘 함께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뜻을 잊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날 때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여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과거의 아픔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빛과 은혜로 비추어 주세요.
그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또한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연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창조세계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을 갖게하여 주세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외면당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평화와 필요한 도움을 허락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갈라진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화해의 자리로 다시 세워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한주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환경주일 예배자료

청소년 설교문

불안한 세상에서 생명을 심는 사람들

 이사야 2:4

박지은 목사 | 생명나무교회

여러분, 요즘 무엇이 가장 불안한가요?

불안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마실 때 불안은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와 마음을 어지럽히고 갇아먹습니다. 사실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지금의 나’를 뒤흔들기도 하고, 친구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탓하게 하고, 조금 더 바쁘게 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어진 하루를 후회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전쟁, 기후위기, 펜데믹... 끊임없이 들려오는 ‘종말 같은’ 세상의 일들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안은 시험이나 관계 걱정만이 아닙니다. 전쟁과 기후위기처럼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느끼는 흔들림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불안은 개인의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감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어주고 허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함께 책임지는 일은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이웃과 연대하는 일보다 내 몫을 챙기는 일이 쉽습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빨리 앞서가야 한다.” “내 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안을 멈출 수 없기도, 불안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불안을 만들어내는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전쟁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란과 미국 등 한 번의 전쟁은 다음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 쏜 미사일은

수천 개의 미사일로 되돌아옵니다. 19세기 프로이센 장군이자 전쟁이론가인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전쟁은 전쟁이 끝난 다음 날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는 것에만 주목할 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온실가스 회계 이니셔티브(IGGAW)는 지난 4년간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단순히 인명 피해에 그치지 않고, 무려 3억 1,1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앗아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온실가스가 지나치게 많아진 탓이었습니다. 과도해진 온실가스로 인해 땅이 뜨거워지고 건조해져서 139만 헥타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숨 쉬는 하늘, 땅과 땅속에 있는 생명들과 강과 바다, 나무와 풀 속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과 가자 지구 봉쇄로 팔레스타인에 모든 물자가 막혔고,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공격에는 공격으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득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불안을 잠재웠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안에 휩쓸리기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희망을 둡니다. 지난해 스웨덴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11명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에게 필요한 구호품을 가지고 가자지구로 향했습니다. 무력하게 삶을 흘려보내기보다 꺼져가는 생명에 주목하고 비폭력적으로 항의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릴수록 그들은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항해를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인간성을 잃는다.”¹⁾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못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사 2:4, 새번역)

1) [경향신문] “더는 ‘10대 환경운동가’아냐…인권운동가 툰베리, 배타고 기자지구로” (이영경 기자, 2025.06.03)

전쟁이 지나간 땅에는 그 어떤 생명도 자랄 수 없습니다. 중금속과 화학물질로 토양미생물이 죽고 땅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으로 프랑스 북동부에는 ‘존 루주(Zone Rouge, 레드존)’라 불리는 땅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0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도 탄약의 화학물질 수치가 높아 식물이 99%가 죽고 불발탄 위험도 있어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²⁾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전쟁의 도구인 칼과 창이 밭을 가는 보습(쟁기)과 곡식을 거두는 낫으로 바뀌는 날에 희망을 둡니다.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에 희망을 품고 칼과 창으로 만든 쟁기와 낫으로 생명을 심습니다. 불안한 시대에 생명을 심는 선택으로 일상을 꾸려나갑니다.

전쟁으로 불안이 요동칠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마치고 살아갈 일상을 기억하고 재현합니다. 이웃과 물과 난방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나누기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시켜 먹기도 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자 힘씁니다. 이에 BBC기자 다리아 티라다이는 말합니다.

**“힘들지만 서서히,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평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최대한 기쁨을 찾고자 노력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³⁾**

그들은 무엇을 얻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힘들지라도 서로 함께 짊어지며 나아갑니다. 맹렬한 두려움에 자기 자신을 두지 않고, 먼 미래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자신에게 희망을 두며 일상을 살아갈 습관을 만듭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평화의 날에 희망을 둡시다. 제아무리 절망과 두려움, 죽음이 우리를 매섭게 흔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희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일상을 맞이하는 습관을 만들어갑시다. 100년이 흘러도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황폐한 땅 위에, 평화를 심고 희망을 꿈꿉시다. 비록 그 평화의 길이 아득하고 막막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안다면 결국 우리는 희망을 마주할 것입니다. 평화의 주님의 부르심 따라, 희망과 평화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 [Atlas Obscura] “Zone Rouge A swath of France so devastated by war it is still forbidden to go there.” (Tony Dunnell, 2018. 07.18)

3) [BBC] 전쟁 중인 나라에서의 ‘평범한’ 일상 (다리아 티라다이 기자, 2025.02.21)

2026년 환경주일 어린이 기도문

하나님, 평화는 밥을 나누어 먹는 거래요.

밥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과 비와 농부의 수고와
지렁이의 꿈틀거림이 흙과 만나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들에게 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모두의 수고가

온 생명에게 골고루 나누어져 살림의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칼과 창을 조각내어, 검게 그을린 땅에 초록 은총이 내려지길.

붉게 물든 세상이 푸르름을 되찾길.

알록달록 아름다운 빛깔이 조화롭게 온 세상을 수놓길.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두 손을 모읍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환경주일 예배자료

어린이 설교문

평화는 생명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사야 2:4

유선경 목사 | 영광교회

샬롬, 어린이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눌까요? 샬롬은 평화의 인사입니다.

긴긴 겨울을 보내고 봄이 돌아오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땅을 갈아엎는 준비를 먼저 합니다.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지요. 겨우내 딱딱해진 땅에는 씨앗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땅을 평평하게 해줘야 해요.

손으로 팽이질을 하다 보면 흙을 사랑하는 지렁이를 비롯한 작은 동물 친구들도 종종 발견하게 되지요. 지렁이를 발견하게 되면 손으로 잡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주세요.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중요한 임무를 지닌 친구들이니까요. 또 자라난 풀들도 호미와 낫으로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농사를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었어요? 장갑도 끼고, 장화도 신어 보아요. 어린이 여러분은 무엇을 심어볼 생각 입니까? 땅속을 파고들어 자라나는 감자나 당근 아니면 초록을 뽑내는 상추나 오이. 맛있는 참외, 토마토도 좋겠지요. 우리의 농사를 도와주는 고마운 농사 친구들인 호미나 낫, 쟁기들은 날카롭고 뾰족하니 항상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인지 농기구들은 오랜 옛날 전쟁이 나면 무기로도 사용되었다고 해요. 흙을 갈고 땅을 파고 풀을 자르던 도구들이 칼과 창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고 해치는 도구로 바뀌게 되면 더욱더 무서워지고 강력해지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강력 전쟁 무기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어린이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 벌어지는 전쟁 소식을 들어봤어요? 2026년 2월 28일 이란의 한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져 165~175명의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새한글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자신들의 칼을 조각내어 쟁기 날로 만들고, 자신들의 창을 조각내어 낫으로 만들 것입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칼을 겨누지 않고, 전투 훈련도 더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도 나무도 동·식물들도요. 땅도 바다도 하늘도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칼을 겨누지 말고, 전투 훈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平和)의 평(平)은 ‘평평하다’, ‘균형을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울퉁불퉁한 것을 고르게 펴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이지요. 우리가 팽이질을 해서 흙을 부드럽게 하고 땅을 평평하게 하듯이요. 화(和)는 곡식(禾)과 입(口)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에 곡식이 골고루 들어가면 다툼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평화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먹거리를 서로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도 함께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먹거리를 나누어주면서 “살롬!!”하고 인사를 해보아요. 살롬의 뜻은 평화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비는 마음이면 좋겠어요. 평화는 전쟁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을 나누고 또한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며 온 생명을 감싸안을 때 그 따뜻함은 봄 햇살이 생명을 싹틔우듯 하늘과 땅, 모든 생명들을 자라나게 해줄 겁니다.

2026년 환경주일 교회학교 활동자료

함께 만들어 보아요

우리 밀을 반죽해서 견과류도 올려 발효빵을 만들어요. 반죽할 때 땅을 일구는 과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조리 도구인 칼에 대해서도 말해주세요. 다만 들어진 빵은 함께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 줄 정도로 넉넉하게 만들어 “살롬!” 이라고 인사하며 나누도록 합니다. 포장 용기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더욱 좋겠지요.



- 1 밀가루와 생(生)막걸리(無아스파탐)를 4:1로 섞어서 반죽을 해줍니다. (작은)한 숟가락 정도의 소금을 넣어주세요. (단맛을 좋아하면 조청이나 설탕을 넣어주어도 좋아요) 반죽이 완성되면 랩을 씌운 후 4-5시간 이상 발효 시간을 갖습니다. 젓가락으로 랩 구멍을 4-5개 뚫어 주어요. 빠른 발효를 위해 스티로폼 상자에 따뜻한 물을 담아 두었어요. 반죽이 두 배 정도 부풀면 시작해도 됩니다.



2 토마 위에 밀가루를 조금 뿌려주고 자유롭게 모양을 만듭니다. 빵칼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고, 씨앗을 심듯 아몬드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가늘고 길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3 다양한 조리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에어프라이어 : 180도 온도에서 15분 정도 굽기는 크기와 좋아하는 맛 종류에 따라 다양하기에 종종 살펴봐 주어야 해요. 저는 와사삭 씹히는 정도가 좋아서 바삭하게 했습니다. 미리 발효시킨 반죽을 아이들과 모양을 만들고 꾸미기에 적합합니다.

와플팬/와플기 : 충분히 예열한 후 5분 정도 구워줍니다. 가장 간편하지요.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이용하면 좋습니다.

압력밥솥 : 시작 전 내솥에 올리브오일을 미리 조금 발라주어야 해요. 건포도나 콩 등을 넣어주어요. 밥솥으로 할 경우에는 반죽할 때 우유를 조금 더 넣어서 주르륵 흐를 정도 묽기로 발효합니다. 만능찜 기능을 이용해 60분 정도 찌는데, 젓가락으로 중앙을 찔러서 묻어 나오지 않으면 성공입니다. 반죽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거나 꾸미기는 어렵지만 많은 양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먹기에 적합합니다.



아시아교회와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기도 (Prayer for God's Creation)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깊이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주님께

이 신음과 아픔,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소망을 맡깁니다.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아시아의 땅과 그 안에 살아가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억압과 가난, 박해와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이제 그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특히 신앙 때문에 위협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재난, 깊은 불의 가운데 놓인 세상 위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말조차 잃은 이들의 탄식을 성령께서 대신 아뢰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자연도, 사람도, 우리의 삶도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음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땅의 아픔과, 모든 생명의 부르짖음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소망의 움직임마저

놓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평화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2026 아시아주일(ASIA SUNDAY)’(2026.5.17.) 예배문 중 기도문

Prayer for God's Creation

God of life and peace, we come before You, weary and burdened.
In our pain and suffering, we look to You, for You see us and know every tear we cry. You are our refuge and strength, and in Your Spirit, we place our agonies and also hope.

God of life and peace,
We come before You holding the continent of Asia in our hearts.
We lift the millions who are groaning under the weight of oppression, poverty, persecution, and hopelessness.
Lord, You have heard their cry, and we ask that You act on their behalf.
We pray for persecuted believers, especially in restricted nations, who face danger for their faith.

Give them supernatural strength, resilience, and courage,
and let them know that You are near in their silent, wordless cries.
We remember those in nations experiencing political turmoil, natural disasters, or extreme injustice.

Let Your justice and righteousness flow into these places like a mighty river.
For those whose hearts are broken, comfort them;
and for those who have no words left,
we ask the Holy Spirit to intercede with groans too deep for words.
Creator of all,
we remember that all that You have created has been groaning;
the created world continues to groan even now.
We also groan inside ourselves.

We remember we have failed to listen to the groans of the earth,
the groans of all creation, and the groans of the Spirit of hope that lives within us.

God of life and peace,
let Your Spirit help us in our weakness.
In our groaning and weakness, let Your strength be made perfect.
Draw us close to You, filling us with Your peace that revives our lives.

God of life and peace,
we ask that You reveal Your glory through our trials.
May our lives, even in suffering, be a testimony to Your love and faithfulness.
We trust You, the Rock that does not move.
We stand in awe of Your mercy, submitting ourselves fully to You in hope.

-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2026 아시아주일(ASIA SUNDAY)’(2026.5.17.) 예배문 중 기도문

제43회 환경주일 예배 예식서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사2:4, 골1:20)

혼돈 "무너진 세계의 어둠 속에서"

- 예배 단 앞의 파괴된 잔해는 탐욕과 폭력이 남긴 무너진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상징합니다.
- 파괴된 잔해 위에 올려진 성서는 혼돈과 파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고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심을 증언합니다.
- 십자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 표징입니다.
- 나무는 폐허 위에서도 다시 시작되는 창조의 회복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 물은 세례의 표징으로서, 죽음을 통과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단 위에 성서, 십자가, 나무, 물을 놓은 후, 조용한 음악이 멈출 때까지 다함께 침묵합니다.

부름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 여는찬송

주 님 의 [평 화 기] — 우 리 의 만 남 속 에 —
 (2. 사랑, 3. 정의, 4. 생명)

넘 치 게 하 — 소 서 — 넘 치 게 하 — 소 서 —

[평 화] — 의 주 여 — [평 화] — 의 주 여 —
 (2. 사랑, 3. 정의, 4. 생명) (2. 사랑, 3. 정의, 4. 생명)

당 신 의 나 라 가 우 리 가 운 데 샘 솟 게 하 — 소 서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전쟁과 탐욕으로 땅이 신음하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폐허 위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고, 분열된 세계를 화해로 이끄시는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같이 주님, 무너진 세계 한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니 응답합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땅의 고통과 생명의 신음을 돌아봅니다. 이제 파괴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피조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일구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경배의 찬송 | “들판의 작은 꽃들과” (성공회성가 349장) / 다함께**



1 들판의 작은꽃들과 햇빛과 비와 바람
2 전쟁의 나팔소리와 주림과 슬픈 눈물
3 창조의 질서안에서 너희는 형제자매



나누는 생명안에서 어울리며 살아가네
우린 왜 공포속에서 적이 되어 미워할까
서로를 위해 나누며 기쁨가득 누리어라



이땅은 우리위하여 값없이 주신 낙원
너없인 나도없어라 우리는 결국 한몸
이것이 주님뜻이며 우리가 만들 세상



생명의 끈이 이어진 하나된 백성이라

* 성서교독 | 이사야 65장 (공동번역) / 다함께

인도자 보아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다같이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인도자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다같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인도자 나는 '나의 즐거움'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고

다같이 **'나의 기쁨' 예루살렘 시민을 새로 나게 하리라.**

인도자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는 울음 소리가 나지 않겠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리라. (17-19)

다같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인도자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고 살리라.

다같이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으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25)**

생명살림의 기도 / 말은이

말씀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성경봉독 | 이사야 2장 4절, 골로새서 1장 20절 / 말은이

설교 |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 말은이

다짐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다짐의 기도 | 자연신경 / 다함께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자연이 하나님의 몸과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자연은 사랑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평화, 자유와 해방의 영이신 성령을 믿으며
자연은 창조질서에 의하여 보전되고 유지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자연 안에 충만함을 믿으며,
자연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안내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생명 살림의 터전임을 믿으며
평화로운 세상을 여는 자연의 청지기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자연의 힘과 사람의 신실한 노동을 통해서
자연이 새롭게 창조되어감을 믿습니다.

우리는 풍요와 편리를 따르는 것이 자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연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붕괴가 인류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엄숙히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착취하고 사지로 내 몰았던 행태를 참회하고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녹색은총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열고 생명을 살리는 환경선교에 매진하겠습니다. 아멘.

결단찬송 |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 다같이

D G/D A/D D G D/F# Em7 A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뜻한 오감을 나누며

Bm F#m G D/F Em C/E A(sus4) A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D Gm/D D F# Bm G D/F# Em7 A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 따르게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소서

Bm F#m G D/F# Em G A(sus4)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A A7 D A/C# Bm F#m7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

G D/F Em9 Em7/A G/D D
주의 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

보냄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파송의 말씀 / 다같이

인도자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 받은 여러분,
폐허 위에서 생명을 일구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다같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인도자 폭력과 지배의 질서를 거부하고, 창조세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다같이 주님의 살롬을 살아내며,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되겠습니다. 아멘.

축도 / 말은이

제43회 환경주일 선언문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오늘 우리는 기후 붕괴와 전쟁이라는 참혹한 ‘이중의 재난’ 앞에 서 있습니다. 제43회 환경주일을 맞는 한국교회는 피조물의 끊임없는 탄식을 직시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엄중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낳은 기후 위기와 무분별한 군사주의가 초래한 전쟁은 하나님의 몸인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가장 극악한 ‘생태학살’입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폭력과 파괴의 도발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생명의 근원으로 돌이키는 단호한 행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창조세계의 청지기라는 거룩한 소명을 저버린 채, 자연을 무한정 착취해 온 생태적 죄악을 통회합니다. 경쟁과 성장에 매몰된 파괴적 문명 속에서 피조물의 희생을 발판 삼아 누려온 풍요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기후 난민의 발생과 생물종의 멸종, 이상 기후로 인한 생명들의 신음은 우리의 영적 무감각이 낳은 결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가혹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의 침묵과 방관을 거부하고, 생태적 회심을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전적으로 동참할 것을 고백합니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4)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20)

기후 위기의 해법은 기술적 보완이 아닌 존재의 전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숲’이 되어야 합니다. 숲은 거목과 풀꽃, 보이지 않는 흙 속의 생명이 상호 의존하며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호혜적 관계망입니다. 각기 다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국교회의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히 연결될 때, 세상을 치유하는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망이 될 때, 파괴의 상징인 ‘칼과 창’은 마침내 생명을 틔우고 땅을 살리는 ‘보습과 낫’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신앙의 토대 위에 서서 어떠한 분열과 차이도 넘어 하나의 마음으로 연대하며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합니다.

하나. 생태적 영성을 회복하고 청지기의 삶을 실천한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 속에 창조 질서 보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새길 것이다. 일상 속 탐욕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발적 가난과 절제를 통해 무더진 생태적 감수성을 깨우는 영성 훈련에 매진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모든 교회가 앞장서서 '녹색교회'로 전환한다. 생태계 회복은 일부의 몫이 아닌 모든 교회의 의무다. 우리는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근절, 자원 순환을 넘어 탄소중립을 향한 제도적 전환을 실천할 것이다. 자본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고 창조세계의 건강한 지체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견고한 생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의 사명을 수행한다. 우리는 처한 환경과 규모의 차이를 넘어 생명 살림의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창조세계를 돌보는 서로의 수고를 존중하고,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지는 확고한 협력망을 구축하여 꺾이지 않는 거대한 '생명의 숲'을 이룩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생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예언자적 사명을 완수한다. 우리는 기후 재난의 최전선에 있는 소외된 이웃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군사주의와 생태 학살에 맞서며,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빛과 소금의 책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 우리를 파괴된 세상을 치유할 생명의 손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적 배경이나 환경의 차이를 장벽이 아닌, 생명의 숲을 이루는 소중한 영양분으로 삼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서로를 해치던 무딘 칼과 창을 버리고, 땅을 일구는 보습과 낫을 함께 베풀시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창조세계를 향해 담대히 행진합시다.

2026년 5월 19일

제43회 환경주일연합예배 참가자 일동

2026년 환경주일 실천자료

전쟁의 시대, 평화의 눈으로 보는 화석연료비확산조약과 한국교회의 생태적 전환

이정규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오늘 우리가 마주한 전쟁과 기후위기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 둘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가 바로 화석연료다. 석유와 가스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경제와 군사 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 자원이다. 군대의 이동, 전투기와 함정의 운용, 군수 물자의 수송까지 대부분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는 단지 산업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이 구조 속에서 국가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개입하거나 동맹을 맺고, 때로는 무기 거래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한다. 특히 석유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이러한 긴장이 더 크게 나타나며, 실제로 많은 분쟁이 화석연료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해체하며, 자연 환경까지 심각하게 훼손한다. 전쟁은 단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현실로 이어진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전쟁과 군사 활동이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군사 체제는 기후위기를 줄이기보다, 그 위기에 '적응'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이 군사 작전에 영향을 주자, 군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보다 무기와 인프라를 이러한 환경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기후위기는 새로운 분쟁을 만들어낸다. 가뭄, 홍수, 자원 부족은 긴장을 높이고, 이는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

람들은 난민이 되지만, 많은 국가들은 이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국경을 군사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기 산업과 보안 산업은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며 이익을 얻는다.

문제는 이러한 군사 활동이 다시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군대는 막대한 화석 연료를 소비하지만, 교토 의정서와 파리 기후협정 체제에서도 군사 배출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군사 분야의 실제 탄소 배출 규모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감축 의무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특히 군사 장비의 이동과 작전에 쓰이는 연료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를 대체할 실질적인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군사비의 증가는 곧 화석연료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탄소 배출을 늘려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그리고 심화된 기후위기는 자원 부족과 갈등을 낳으며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전쟁과 기후위기는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속에 놓여 있다.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군사 규모 자체를 줄이고, 국가 간 긴장을 완화하며, 외교와 군축, 그리고 불평등 해소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오늘의 화석연료 중심 구조는 단순한 에너지 체계를 넘어 경제와 군사를 지탱하면서 전쟁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확대하는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전쟁을 줄이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향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안된 것이 ‘화석연료비확산조약(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이다. 이 조약은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 세계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 국가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국제적 논의이다.

이 조약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 세계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약 120% 더 많은 화석연료를 2030년까지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지구 온도 상승의 한계는 1.5°C이며, 지금과 같은 확장 계획이 계속될 경우 지구는 3°C 이상의 온난화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명백히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또한 많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는 부채와 재정 부족, 산업 구조의 한계로 인해 화석연료에

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줄이자”는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정한 전환을 위한 재정과 기술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화석연료비확산조약은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비확산’은 석탄, 석유, 가스의 신규 개발과 생산 확대를 중단하여 문제를 더 키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공정한 단계적 폐지(A Fair Phase-Out)’는 이미 생산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줄여나가되,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크고 전환할 역량이 충분한 국가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감축을 시작하고, 다른 국가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국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경제 구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이 조약은 아직 완성된 협약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점점 확장되고 있는 흐름이다. 현재 여러 국가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18개국이 함께하는 연합을 중심으로 4,200개 이상의 시민사회 단체, 195개 이상의 지방정부, 800명 이상의 국회의원, 101명의 노벨상 수상자, 3,000명의 과학자,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개인이 이 흐름을 지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 주체들도 이 조약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교회협의회 역시 이러한 흐름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국제 회의에 함께하며, 회원 교회들과 더불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공정한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생명의 문제로 인식하는 신앙적 응답이기도 하다.

결국 화석연료비확산조약은 기후위기의 결과를 관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 체제를 직접 다루고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이 전환은 어느 한 국가의 과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공동의 책임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 요청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는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은, 폭력과 파괴의 도구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바뀌는 전환의 비전을 보여준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

물이 화해되고 평화가 이루어짐을 선포한다. 전쟁과 기후위기가 얽혀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리킨다.

우리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체제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거대한 정책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에너지 사용을 돌아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으며, 기후위기와 생태정의에 대한 교육과 나눔을 통해 신앙의 문제로 함께 고민할 수 있다. 또한 화석연료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연대하며, 교회의 목소리를 공공의 자리에서 낼 수 있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소비와 생활 방식을 돌아보고,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노력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더 큰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일への 참여도 필요하다. 우리는 파괴의 에너지가 아니라 돌봄의 에너지로, 경쟁과 착취의 구조가 아니라 공존과 정의의 질서로 전환해야 한다. 교회는 이 전환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서 있다. 칼을 쥐고 있을 것인지, 보습을 들 것인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방식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와 생태적 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교회 역시 이 변화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방향을 선택해 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내가 심은 6그루의 나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 숲으로 창조세계를 회복합시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올리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이사야 41:19)**

숲은 기후 위기의 완화와 적응에 기여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숲의 생태계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의 숲의 60%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오직 숲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약 16억명의 사람들과 숲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기존의 숲을 지키며 6그루의 나무를 더 심어 숲을 복원한다면 기후 생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조세계의 한 부분으로 특히 우리들에게는 창조세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지키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일은 생명의 방주인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선교이자 미래를 위한 공동체적 희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몽골과 네팔의 은총의 숲에서 숲을 성공적으로 회복한 경험을 통해 한국교회는 세계의 각 지역의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숲을 복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은총의 숲은 지난 2008년부터 기후생태 위기에 취약한 이웃 국가에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녹색선교 사업입니다.

은총의 숲 6그루 나무심기 캠페인은 기후생태 위기로 숲이 사라져 고통을 겪고 있는 세계 곳곳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 선교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하는 녹색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은총의 숲 6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참여 안내

1 개인참여 : 은총의 숲 천사 되기

은총의 숲에 1그루의 나무를 심고 지속적으로 돌보며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20,000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은총의 숲의 천사가 되셔서 6그루의 나무 심기를 후원하고 녹색선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숲 천사에게는 6그루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 증서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개인 후원금은 기부금 관련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 QR코드

후원방법 | 매달 10,000원씩 1년 정기 후원 / 120,000원 일시 후원

2 교회 단체 참여 : 캠페인 안내 및 교육 프로그램

기후생태 위기 시대 가운데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교회 단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부활절, 창조절, 대림절, 성탄절, 환경주일, 기후정의주일, 식물일, 지구의 날, 환경의 날 등 교회의 절기와 기념일에 은총의 숲 6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을 알리며 교회와 단체의 동참을 다짐하는 행사와 은총의 숲 생태기행, 씨드볼 만들기 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QR코드



은총의 숲에서는 은총의 숲 조성에 참여한 교회와 단체에 녹색선교 후원 증서를 전달하고 귀한 정성과 마음을 기억하는 동판을 제작하여 은총의 숲 조성지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숲 녹색선교 후원 및 은총의 숲 6그루 나무심기 캠페인 후원계좌
농협은행 301-0009-6346-21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은총의 숲

기후위기 걸기기도회

기후위기 걸기기도회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기도와 발걸음으로 함께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기도하며 걷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후위기를 향한 신앙적 성찰을 나눕니다.
 또한 사회와 교회를 향해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잠시 멈추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걸기기도회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기도를 행동으로 이어가는 기후행동의 실천이며,
 신앙적 성찰과 사회적 증언, 연대의 행동을 아우르는
 영적이면서도 공적인 실천입니다.
 기후위기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함께 걷고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갑니다.



기후위기 걸기기도회 이렇게 드려보세요

출발 전 예배 - 걷기 - 마무리 기도회

- 사전 예배/집회 : 찬양과 말씀, 기도로 마음을 모읍니다.
- 걷기 : 상징적 장소(광장, 교회, 관공서, 환경 현안이 있는 곳)을 지나며 기도하며 걸습니다.
- 마무리 : 도착지에서 다시 모여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앞으로의 행동을 다짐합니다.
- * 참가자들은 기도하는 순례자로 참여합니다. 각자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함께 걸습니다.

서울지역 걸기기도회 안내 | 매월 둘째주 주일 오후

- 서울 중부 4시
- 서울 강동송파 3시
- 서울 동북부 3시
- * 각 교회와 지역에서도 여건에 맞게 걸기기도회를 자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43회

2026년 환경주일

6월 첫째 주일

6월 둘째 주일 (감리교)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이사야 2장 4절)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 참여교단 · 단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구세군한국군국 | 기독교대한감리회 | 기독교대한복음교회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루터회 | 대한성공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 한국기독교장로회 | 한국정교회

| 협력 | 녹색교회네트워크

| 문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
02-3673-4943 www.kncc.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02-711-8905 www.greenchrist.org